**세금 회피기업 외면하는 '윤리적' 펀드 증가세**

**<출처: 로이터** 2013.01.21>

대기업이 저지르는 뻔뻔한 조세회피에 대한 공분이 커지면서 윤리적인 투자가들이 조세회피기업의 주식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거대한 재정적자의 골을 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 애플이나 구글, 이동통신사인 보다폰같은 대기업은 큰 수익을 거두고도 최소한의 세금만 내었다. 언론이 이런 대기업의 조세회피 행태를 보도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집단적 저항이 늘어났다.

비난받은 기업들은 법을 지켰다고 항변했고 몇몇은 법적으로 가능한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정치가들은 세금 회피가 비도덕적이라면서 기업 경영자들을 공개 청문회에 세웠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의 조세기관들은 유력한 탈세 기업의 사무실을 급습해 증거를 찾아내기도 했다.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를 주장하는 많은 투자자들은 투자할 기업을 결정할 때 그 기업의 납세 관행을 고려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책임투자는 개인과 조세기관을 넘어 최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펀드에게로도 확대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http://news1.kr/articles/978255>

**기업이 사회통합 전도사로..상생 3.0 시대 열다**

**<출처 : 이데일리 2013.01.30>**

기업들이 낮은 자세로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번창하던 신자유주의가 퇴조하면서 2000년대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이 시작됐지만, 최근 훨씬 강도가 세지고 방식도 ‘체감형’, ‘혁신형’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개되는 기업 생태계 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사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한 뒤 성과를 나누고 있다. 말 그대로 동반성장이요, 나눔경영이다. 형편이 어려운 음악 영재가 비싼 교육비 부담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베이비 부머(baby boomer)인 퇴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선해 주기도 한다. 아직은 사회의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런 나눔의 바이러스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41&newsid=03125846602682968&DCD=A00304&OutLnkChk=Y>

**올해 ‘착한 기업’ 펀드 수익률 착하다**

**<출처: 헤럴드경제 2013-02-01>**

사회적책임투자(SRI), 녹색성장 등 이른바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연초에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때문에 착한 기업으로 분류되는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나타냈으나, 연말부터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임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펀드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들어 녹색성장(해외) 테마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7.23%, SRI펀드(해외)의 수익률은 6.68%로 전체 33개 테마 펀드 가운데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201000117&md=20130201090154_AN>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출처: 한겨레** 2013-01-31>

**HERI의 시선**  
  
올해 신년사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유독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저마다 사회적 책임 방안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 연말 박근혜 당선인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방문해 대기업이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기업 총수들에게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자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지난달 10일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대기업 총수들은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액을 늘리고 사회공헌활동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출이 3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12월 전경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 222곳은 2011년 사회공헌활동에 모두 3조 1241억원을 썼다. 10년 전에 견줘 세 배 가량 늘어난 규모라고 한다.

기사전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174535>